

고등교육 전문가들 “제도 유연화로 대학 경쟁력 강화해야”

대교협 창립 40주년 정책 토론회

대학 위기극복·대교협 역할 논의
자율성 위한 ‘네거티브 규제’ 주장
외부기관 협력 ‘컨소싱전략’ 제안도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창립 40주년 맞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학 위기 상황에 대한 대학 자율성과 재정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지난 10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교협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학 교육의 위기 상황과 대교협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흥원화 대교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우승 한양대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조강연은 이현정 한양대 석좌교수가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소



오대영 가천대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前 교무처장협의회장), 박남기 광주대 교수(前 광주교육대 총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前 대교협 회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대교협 부회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前 대교협 부회장), 이상일 목포대 기획처장(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 이병식 연세대 교수,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왼쪽부터)가 대교협 40주년 기념 대학교육 정책 포럼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장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과제와 대학의견’이라는 주제 발표 이후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박남기 광주대 교수, 오대영 가천대 교수, 이병식 연세대 교수, 이상일 목포대 기획처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정진택 대교협 부회장이 맡았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지방 교육 체계 개편 등이 있다.

토론에 참석한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학의 운영 제도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동의했다. 김현영 총장은 대학의 재정적 지원 안정과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대학의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재정 불균형 등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대학평가 간소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

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별 설립 목적과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전략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체계 개선을 들었다.

교육부의 송근현 과장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계 대학 관리 형식으로 들어가 한계 대학이 아닌 대학에게는 재정을 선 지원하고, 후에 대학들이 스스로 자율혁신 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들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성과 평가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0월 중구체적방

안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의 향후 역할에 대한 조언도 제시됐다. 박남기 교수는 대교협의 인력 구조와 재정 상황의 한계를 분석해 ‘컨소싱(consourcing)’ 전략을 제안했다. 컨소싱이란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역할 수행의 한계를 느낀 기관이 전문 외부 기관과 협력해 인적·물적·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성장하는 윈윈 전략이다.

여기에서도 정부 및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박남기 교수는 컨소싱 전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교협의 핵심 역할은 ‘국회나 교육부를 통해 연수 예산을 확보하고, 연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자였던 송근현 과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발언을 했다. 교육부가 현장과 국민의 눈높이 맞춤형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편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 대학 평가 부분들에 대해 대학 현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하반기쯤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의약·수의대 목표시 수능 만점수준 준비 필요”

종로학원 정시 일반전형 결과 분석 전형 무관 수능 고득점 필수 요소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의약계열(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및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수시·정시 관계없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대학 어디가’에서 공개한 전국 의약계열 및 수의대 정시 일반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주로 살펴보면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 전형에서도 1등급 내 성적을 받아야 된다.

특히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

하고 있으므로 수능 고득점이 중요한데, 각 영역별로 만점을 기준으로 1, 2 문항 정도 제외하면 만점 가까이 받는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

통합 수능 시행 및 표준점수 활용도를 따졌을 때, 국어 및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 응시에도 주의를 요한다. 종로학원은 고득점에 유리한 국어 영역은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 각 대학별 전형계획 및 수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의약계열 및 수의대학부 정원내 전체 모집인원은 6599명이고, 모집시기별로는 수시 3892명(59%), 정시 2707명(41%)이다. 수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 전형이 1994명(전체 모집정원의 30.2%)로 가장 많

고, 학생부종합 1640명(24.9%), 논술 전형 258명(3.9%) 등이다.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종로학원이 강조하는 것은 수능 대비의 중요성이다.

종로학원은 “2023 의약계열 및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목표 대학 및 전형별 특징에 맞춰 학교 ‘내신이 최상위권인 경우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대라면 정시와 수시 논술전형을 병행’해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수시 모집에서도 의약계열 및 수의대는 대부분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므로 수능 대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하은 기자

동국대,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 개최

KERIS-고신대-서강대 공동 개최

동국대학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고신대학교 및 서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인문학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독후감 공모전은 인문학적, 공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통한 지식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 독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재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부 ▲동국대 및 고신대, 서강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부로 나눠 실시된다.

고교부 및 대학부 대상으로 선정된 추천도서 중 한 권을 선택해 읽고, 참가신청서와 함께 독후감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평소 다양한 분야의 양서를 접하기 어려운 고교생들을 위해 독서 교육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도서 100선’과 독후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고교부 수상자에게는 KERIS 원장상, 동국대 총장상을 시상하며 대상(1인) 50만원, 우수상(2인) 각 30만원, 장려상(3인) 각 20만원의 부상을 수여



한다. 대학부 수상자에게는 각 대학의 총장상, KERIS 원장상과 대상(1인) 70만원, 우수상(2인) 각 50만원, 장려상(3인) 각 3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교부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홈페이지, 에듀넷-독서교육·인문소양교육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대학부는 동국대, 고신대, 서강대 각 도서관의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4차 산업혁명 과정 생명과학 적응 논의

생명과학대 제10회 학술제 성료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은 지난달 25일 광개토태곤 컨벤션 A홀에서 제10회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학술제는 전공에 대한 시각과 지식을 넓히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최됐다.

학술제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생명과학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로 예선과 본선으로 치러졌다. 본선에서는 참가 16팀 중 예선을 거쳐 통과된 8팀이 경쟁을 벌였다. 본선은 10분간 발표를 진행하고 5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이상협 교수, 바이오융합공학전공 임태규 교수, 식품생명공학전공 임태규 교수,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서현권 교수가 참여했다.

상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장려상 2팀에 주어졌다. 금상은 전초희(바이오융합공학전공·20학번), 경승호



세종대 생명과학대학 학술제 진행 현장. /세종대

(생명시스템학부·22학번), 박시원(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18학번), 한민아(바이오융합공학전공·19학번) 학생으로 구성된 ASMR팀에게 돌아갔다. ASMR팀은 소아 자폐 진단과 디지털 치료제에 관한 주제로 발표했다. ECG, 아이트래킹, 안면인식을 종합해 자폐 특성을 진단하고 ABA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제안했다.

ASMR팀의 팀장 한민아 학생은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열린 첫 학술제에서 큰 성과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 평소 관심을 가진 주제로 팀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여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열심히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화요음악회 놀러오세요”

세종대학교 음악과는 오는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세종대 대양홀 광장 앞에서 화요음악회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진행돼 온 화요음악회는 바쁜 일상을 사는 지역주민,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이 교정에서 음악을 들으며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19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지

만 엔데믹 상황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화요음악회는 청중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무거운 클래식 연주자 아닌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OST, 유명한 오페라, 각종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등장한 클래식 음악이 연주된다.

/신하은 기자